

## 올해 '장성 노란꽃잔치' 웅장한 꽃정원 3곳 조성한다

내달 1일부터 13일까지 황룡강 일원서... '수수꽃 정원' 첫 선

컬러·이야기·빛 표현 3개 정원 조성 3.2km 규모 플라워 리버

올가을 황룡강 일원에서 펼쳐지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새롭게 탈바꿈한다. 웅장한 꽃 정원이 들어서고 새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이벤트가 관광객을 맞는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올해 노란꽃잔치의 가장 큰 변화는 축제의 핵심인 '황룡강'이다. 군은 올해 축제의 주제인 컬러와 이야기, 빛을 표현하는 3개 정원을 황룡강 일원에 대규모로 조성해 총 3.2km 규모의 플라워 리버를 완성한다.

수수꽃 정원이 첫선을 보이며 황룡강 곳곳에 드레스 가든 등 총 6곳의 포인트 가든과 셀프 꽃 스투

디오인 인생꽃사진관 부스가 마련된다. 축제기간이 10월의 절을 감안해 '호박'을 테마로 준비될 이색 포토존도 관심을 끈다. 박터널과 할로윈 포토존은 행운을 상징하는 '대박'과 서양의 할로윈을 재치 있게 엮어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노란꽃잔치에서 극찬을 받았던 황룡강의 야경을 더욱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된다. 강물 위에서 황룡강의 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아쿠아가든이 조성된다.

황룡강의 변신과 함께 새롭게 준비되는 체험코너들도 주목된다.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앵무새 특

별 체험관과 꼬마 정원사 화훼체험을 위한 어린이 패키지 체험이 마련된다. '엘로우시티 장성'의 맛을 느껴볼 수 있는 황금요리 푸드쇼도 기대되는 체험코스다. 매력적인 이벤트도 다양하게 펼쳐져 방문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또한 황룡강 꽃밭에 동선을 조성해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곳곳에 쉼터와 그늘막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축제쿠폰을 5일부터 발행되는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장성읍~황룡강 간 정기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영해 이용의 편리성과 읍 시가지 상가와의 연계성을 확보해 지역경



제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올해 노란

꽃잔치는 더욱 풍성한 가을꽃과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 곡성군, 현장 견학과 실습 중심 한우교육 '호응'

곡성명품농업대학 한우반, 영주·보은 한우 현장교육



곡성군이 한우 농가와 함께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경북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및 충북 보은군 용대축산장을 방문해 실시한 한우 현장교육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 제9기 곡성명품농업대학 한우반 교육생 및 한우연구회 회원 25명이 참가했다. 교육생들은 먼저 경북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우 인공수정과 소 자궁 해부 실습 등을

진행했다. 실제 소 자궁으로 진행했던 인공수정 및 해부 실습은 한우 사육 경력이 많은 농업인들에게도 흔치 않은 경험이라 참석 농업인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이튿날에는 충북 보은군 용대축산장을 찾아 한우 사양관리와 사료배합 요령을 공부했다. 또한 곡성군은 ㈜고려산업 김점현 박사를 초빙해 농가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안들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했다. 제9기 곡성명품농업대학 한우반 임주섭 회장은 "다양한 실습과 현장견학을 통해 많은 교육생들이 한우를 더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만족해했다.

곡성=김평희 기자

## 담양군, 자녀양육 사각지대 해소 '육아나눔터' 개소

담양군은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3일 문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와 신한희망재단에서 70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후원받아 담양 여

성회관 4층에 놀이공간과 수유실, 수면실을 갖는다. 자체적으로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을 열어 다양한 장난감과 도서를 무료 대여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앞으로 부모와 자녀, 이웃이 함께하는 안전한 장소로 서로 육아 정보를 교환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간이 될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은 전담수행기관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맡게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 한빛원전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가동을 멈추고 정기검사를 실시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6호기의 임계를 2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관(CLP),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CLP로 불리 는 격납건물 내부철관은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의 철판이다. CLP 점검결과, 기준두께(5.4

mm)보다 얇은 부분은 없었으며, 콘크리트 공극 1개소(주급수배관 하부, 폭 40x높이 11x깊이 12cm)는 보수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을 통해 CLP 건전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관막을 정비 등이 적절하게 수행됐고,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